

甲己爲南政 餘爲北政說에 관한 研究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윤창열 *

A Study on the Theory of JiaJi Years(甲己年) as a period of South Politics(南政) and the Rest Eight Years as a period of North Politics(北政)

Yun Chang-Yeol *

Dept. of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Deajeon University.

Objectives : Generally, pulsation is influenced by climate change in the realms of nature. However, there is a theory explaining a phenomenon in which the pulse gets weaker and even absent for no reason, without affected by diseases; this is the Theory of South and North Politics with which medical practitioners need to be familiar when taking the pulse of patients.

Methods : The researcher considered all the previous annotations and the original text of *SuWen* (素問)·*ZhiZhenYaoDaLun*(至真要大論).

Results : In Five Elements' Evolutions, JiaJi(甲己) becomes Tu(土), which turns itself into the king, an honorable duty. JiaJi is a period of South Politics because it looks south to give an order while the rest eight years is a period of North Politics because they are headed north to receive an order.

Conclusions : Since South Politics years look south as a standard, Cun(寸) is located at the south and Chi(尺) is at the north. Controlling the Heaven energy(司天) is located at the south and Effecting the Earth energy(在泉) is at the north. Therefore, if Sanyin is Controlling the Heaven energy(三陰司天), the Cun pulse is absent; if Shaoyin is Controlling the Heaven energy(少陰司天), Cun pulses on both wrists are not felt; if Jueyin is Controlling the Heaven energy(厥陰司天), the Cun pulse on the right wrist disappears; if Taiyin is Controlling the Heaven energy(太陰司天), the Cun pulse on the left wrist is not felt. In the case of Chi, if Sanyin is Effecting the Earth energy(三陰在泉), the Chi pulse is absent; if Shaoyin is Effecting the Earth energy(少陰在泉), Chi pulses on both wrists are not felt; if Jueyin is Effecting the Earth energy(厥陰在泉), the Chi pulse on the right wrist disappears; if Taiyin is Effecting the Earth energy(太陰在泉), the Chi pulse on the left wrist is not felt. North Politics years appears conversely as compared with South Politics years.

Key Words : South Politics(南政), North Politics(北政), JiaJi years(甲己年), Controlling the Heaven energy(司天), Effecting the Earth energy(在泉)

1. 緒 論

運氣學說은 天人相應의 理論에 基礎를 두고 十干十二支를 運用하여 氣候 및 天氣가 人間의 健康에 미치는 影響을 具體的으로 研究하여 生理, 病理, 診斷, 豫防, 治療 등의 각 方面에 이르기까지 完全한 醫學氣象理論을 體系化한 것이다. 그리하여 옛 사람들은 “運氣之道는 上古聖人이 所以參天地하며 贊化育者也라” 하였고 또 “不知運氣而爲醫면 欲其無失者나 鮮矣라”하여 人間이 財成天地之道하고 輔相天地之宜하는 일이라고 強調하였다.

이와 같이 運氣學說은 岐黃家의 要道로 醫學을 工夫하는 者가 必須的으로 알아야 될 內容이지만 그 哲理가 幽深하고 文辭가 古奧하여 初學者로서는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우므로 이제까지 등한시 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더 나아가 『素問·至眞要大論』에 소개되어 있는 南北政에 관한 內容은 더욱 難解하고 諸家의 說이 多岐하여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南北政은 그 해의 運氣를 근거로 人身의 氣脈을 推論하는 方法이다. 『素問·五運行大論』에서 “先立其年하여 以知其氣의 左右應見이라야 然後에 乃可以言死生之逆順也라(먼저 그 해의 운기를 파악하여 그 氣가 左右에 응해서 나타나는 것을 알아야만 그런 뒤에 비로소 逆하여 죽고 順하여 生하는 것을 말할 수 있다).”¹⁾라고 하였고 張介賓은 “倘粗工이 不知而呼寒呼熱하여 妄施治療하면 害莫大矣라(만약 거친 의사가 이를 알지 못하고 함부로 한증이라고 하고 열증이라 하여 망령되이 치료를 하면 피해가 이것보다 큰 것이 없다).”²⁾라고 하였다. 南北政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南政과 北政의 기준을 세우는 일이다. 지금까지 주장된 내용을 살펴보면 王冰 이후 主流를 이루

고 있는 甲己爲南政 餘爲北政說, 張隱庵이 최초로 주장한 戊癸爲南政 餘爲北政說, 陸儋辰이 처음 주장하고 任應秋등이 추종한 黃道南緯(亥子丑寅卯辰)爲南政 北緯(巳午未申酉戌)爲北政說, 徐振林의 지구 赤道의 卯酉線을 기준으로 卯辰巳午未申爲南政 酉戌亥子丑寅爲北政說, 田合祿의 徐振林과 반대로 본 酉戌亥子丑寅爲南政 卯辰巳午未申爲北政說 그리고 歲運太過爲南政 不及爲南政說 등이 있다. 이 중 甲己爲南政 餘爲北政說은 王冰을 위시하여 劉溫舒·李東垣·汪機·吳崑·李梴·馬蒔·景日珍 등 대부분의 의가들이 追從하고 있으며 張介賓에 의하여 集大成되었다. 南北政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본인이 쓴 南北政에 관한 고찰³⁾, 南北政에 관한 고찰(II)⁴⁾외에는 없는 실정이다. 南北政에서 南政과 北政을 세우는 기준은 비록 다를 수 있지만 脈不應에 대한 내용은 모두 동일하다. 이에 論者는 앞의 논문에서 정확하게 언급하지 못했던 내용을 증보하고 임상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甲己爲南政 餘爲北政說만을 중심으로 새롭게 研究하여 學界에 報告하는 바이다.

2. 南北政理論의 發端

『素問·五運行大論』에 “帝曰天地之氣를 何以候之오 岐伯이 曰天地之氣의 勝復之作은 不形於診也니 脈法에 曰天地之變은 無以脈診이라하니 此之謂也니 이다(황제가 물었다. 천지의 기운을 어떻게 관찰합니까. 기백이 대답하였다. 천지기운에서 승기와 복기의 작용은 脈診에 나타나지 않으니 脈法에 이르기를 ‘천지의 이상기후 변화는 脈으로 진찰할 수 없다’고 하였으니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⁵⁾라 하였다.

이는 自然界의 氣候變化는 全的으로 모두 脈象에 反映되지 않으므로 診斷에 있어서 이러한 規律를 반드시 把握하고 있어야만 한다는 말이다.

위의 말은 또한 內經에서 人與天地相應思想에 入

* Corresponding Author : Yun Chang-Yeol. Dept. of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Daejeon University. Yongun-dong, Dong-gu, Daejeon.
Tel : 042-280-2601.

E-mail : yooney@dju.ac.kr

Received(25 January 2016), Revised(16 February 2016),

Accepted(17 February 2016).

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130.

2) 張介賓. 類經圖翼. 서울. 成輔社. 1982. p.69.

3) 尹暢烈. 南北政에 관한 고찰. 동양의학. 1985. 11(2). pp.50-57.

4) 尹暢烈. 南北政에 관한 고찰(II). 대전대학교논문집. 1987. 6(1). pp.253-263.

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130.

脚하여 一貫의으로 強調하는 “天地之變에 陰陽之應 하나 彼春之暖은 爲夏之暑하고 彼秋之忿은 爲冬之怒라. 四變之動에 脈與之上下하니 以春應中規하며 夏應中矩하며 秋應中衡하며 冬應中權이니이다(천지의 변화에 음양이 따라서 응하니 봄날의 따뜻함은 발전하여 여름의 무더위가 되고 가을의 勁急함은 발전하여 겨울의 혹한이 된다. 사시의 변동에 脈이 그와 더불어 올라가고 내려오니 봄에 응하는 脈은 원을 그리는 콤파스처럼 弦脈이 나오고 여름에 응하는 脈은 직각자처럼 鉤脈 또는 洪脈이 나오고 가을에 응하는 脈은 저울대처럼 毛脈이 나오고 겨울에 응하는 脈은 저울추처럼 石脈 또는 沈脈이 나타 납니다.”⁶⁾ “春日浮하니 如魚之游在波하고 夏日在膚하니 泛泛乎萬物有餘하고 秋日下膚하니 蟄蟲將去하고 冬日在骨하니 蟄蟲周密하고 君子居室이니이다 (봄에는 脈이 떠서 올라오니 마치 고기가 파도 속에서 노는 것 같고 여름에는 脈이 피부에 있으니 마치 만물이 떠서 유여한 것과 같고 가을에는 脈이 잠겨 피부 아래에 있으니 마치 겨울을 나기 위해 벌레들이 장차 구멍 속으로 들어가려는 것과 같고 겨울에는 脈이 뼈에 있으니 마치 벌레들이 구멍 속에 완전히 숨고 사람들이 방안에 머무는 것과 같다.)”⁷⁾ 等의 應四時의 內容에 違背되는 말이다. 이 문제는 두 가지 觀點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內經에서 말하는 人與天地相應은 自然氣候의 變化는 人體의 生理變化에 影響을 미치므로 따라서 不同한 季節變化에 依하여 不同한 脈象 卽 春弦·夏洪·秋毛·冬石 등과 같이 脈象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異常氣候變化에 있어서는 絶對的으로 反映되지 않는 規律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勝復之作같은 것은 特殊氣候變化는 不形於診하므로 이러한 때는 其他의 飲食·勞倦·精神狀態 等의 狀況을 參考하여 진찰해야 한다는 말로 理解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勝復之作같은 特殊氣候變化가 아닌 正常변화에서도 脈이 不應하는 現象이 있는데 이는 결코 病脈이 아님으로 이에 현혹되서는 안되니 이것이 곧 南北政에 關한 理論이다.

『素問·至眞要大論』에 “帝曰 夫子 言察陰陽所在而調之라하시고 論에 言人迎與寸口相應야 若引繩야 小大齊等을 命曰平이라 하신데 陰之所在에 寸口는 何如오 岐伯曰 視歲南北하면 可知之矣니이다. 帝曰 願卒聞之하노이다. 岐伯曰 北政之歲에 少陰在泉 則寸口不應하고 厥陰在泉 則右不應하고 太陰在泉 則左不應이니이다. 南政之歲에 少陰司天 則寸口不應하고 厥陰司天 則右不應하고 太陰司天 則左不應하니 諸不應者는 反其診則見矣니이다. 帝曰 尺候는 何如오 岐伯曰 北政之歲에 三陰在下 則寸不應하고 三陰在上 則尺不應하며 南政之歲에 三陰在天 則寸不應하고 三陰在泉 則尺不應하며 左右同이라. 故로 曰 知其要者는 一言而終이어나와 不知其要면 流散無窮이라하니 此之謂也니이다(황제가 물었다. 부자께서 ‘음양의 소재를 파악하여 고르게 조화한다’라고 하셨고 醫論에서 말하기를 ‘人迎脈과 寸口脈이 상응하여 새끼줄을 당기는 것처럼 크기가 가지런한 것을 平人이라고 부른다고 하셨는데 司天, 在泉에 따른 三陰의 소재에 따라 寸口脈은 어떻습니까’ 기백이 대답하였다. 그 해의 南政, 北政을 파악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황제가 물었다. 원컨대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기백이 대답하였다. 북정의 해에 소음이 在泉하면 兩寸脈이 나타나지 않고 厥陰이 在泉하면 右寸脈이 나타나지 않고 太陰이 在泉하면 左寸脈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南정의 해에 소음이 司天하면 兩寸脈이 나타나지 않고 厥陰이 司天하면 右寸脈이 나타나지 않고 태음이 司天하면 左寸脈이 나타나지 않으니 모든 나타나지 않는 것은 반대로 즉 寸不應 일때는 尺, 尺不應일때는 寸, 左不應일때는 右, 右不應일때는 左측을 짚어보면 脈이 나타납니다. 황제가 물었다. 尺脈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기백이 대답하였다. 북정의 해에 三陰이 在泉하면 寸脈이 나타나지 않고 三陰이 司天하면 尺脈이 나타나지 않으니

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p.37-38.

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38.

며 남정의 해에 三陰이 司天하면 寸脈이 나타나지 않고 三陰이 在泉하면 尺脈이 나타나지 않으며 太陰일때는 司天, 在泉을 막론하고 左側이 不應하고 厥陰일때는 司天, 在泉을 막론하고 右側이 不應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요점을 아는 사람은 한마디로 끝나지만 요점을 알지 못하면 흘러가고 흩어져서 알 수가 없다.’고 하였으니 이것을 말하는 것임니다.)⁸⁾라 하였다.

이것이 南北政의 理論이 나온 根源인데 南政과 北政을 세우는 基準이 달라 여러 학설이 亂舞하고 있는 實情이다. 그러나 남정과 북정을 세우는 기준만 다를 뿐 脈不應에 대한 내용은 同一하고 甲己로 남정을 삼고 나머지 해로 북정을 삼은 것이 主流를 이루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심이 되는 이 說만을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3. 甲己爲南政 餘爲北政說의 主要내용

六氣에서 君火가 尊位가 되고 五運에서는 土가 尊位가 된다. 이는 君은 본래의 尊位에 있는 자이고 五行의 土는 君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甲己土運이 들어오는 해가 君位가 되고 임금은 南面行습함으로 南政이 되고 나머지 乙庚金, 丙辛水, 丁壬木, 戊癸火運이 들어오는 해는 臣位가 되고 신하는 北面受습하므로 北政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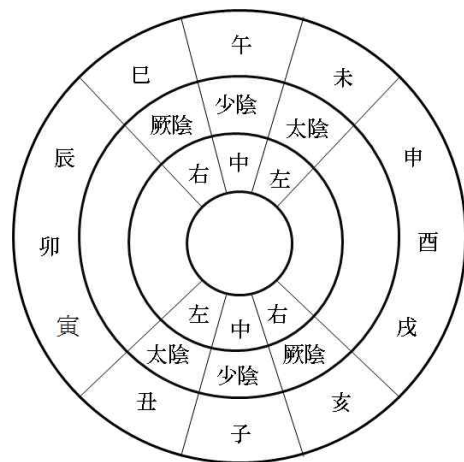
甲己之歲에는 南쪽을 바라보며 기준을 정하니 손을 앞으로 뻗었을 때(손을 위로 든다고 생각하면 上爲南而下爲北이 된다) 寸은 남쪽에 있게 되고 尺은 북쪽에 있게 되며 司天之位는 남쪽에 있게 되고 在泉之位는 북쪽에 있게 됨으로 南政年에는 三陰이 司天하면 寸不應하고 三陰이 在泉하면 尺不應하게 된다.

乙庚, 丙辛, 丁壬, 戊癸의 해에는 북쪽을 바라보며 기준을 정하니 손을 앞으로 뻗었을 때 寸은 북

쪽에 있게 되고 尺은 남쪽에 있게 되며 司天之位는 항상 남쪽에 있고 在泉之位는 항상 북쪽에 있게 됨으로 北政年에는 三陰이 司天하면 尺不應하고 三陰이 在泉하면 寸不應하게 된다. 少陰, 厥陰, 太陰의 三陰이 司天, 在泉할 때 脈이 不應하는 이유는 陰氣는 沈하고 陽氣는 浮하며 또한 陰氣가 應하는 것은 氣虛함으로 三陰이 있는 곳에는 脈이 沈細하여 의사의 손끝에 不應하게 된다. 張介賓은 이에 대해 “脈有不應者是 謂陰之所在에 脈乃沈細하여 不應本脈也(脈이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陰이 있는 곳에 脈이 沈細하여 本脈에 응하지 않는 것이다.)⁹⁾”라고 하였다.

이때 少陰이 司天하거나 在泉하면 兩寸 또는 兩尺이 모두 不應하고 厥陰이 司天하거나 在泉하면 右寸 또는 右尺이 不應하고 太陰이 司天하거나 在泉하면 左寸 또는 左尺이 항상 不應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三陰의 자리는 少陰이 中이 될 때 厥陰은 언제나 右側에 있게 되고 太陰은 언제나 左側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이를 그림(Fig. 1)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Fig. 1. A picture of Sanyin's location



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p.178-179.

9) 張介賓. 類經圖翼. 서울. 成輔社. 1982. p.70.

巳亥는 厥陰風木이 되고 子午는 少陰君火가 되며 丑未는 太陰濕土가 된다. 亥子丑는 북쪽에 위치함으로 남쪽을 보고 左右를 정할 때 厥陰이 右가 되고 太陰이 左가 된다. 巳午未는 남쪽에 위치함으로 북쪽을 보면서 左右를 정할 때 역시 厥陰이 右가 되고 太陰이 左가 된다. 따라서 厥陰은 항상 右가 되고 太陰은 항상 左가 된다. 이를 바탕으로 南政, 北政年의 不應하는 脈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甲己年 즉 南政年에는 寸在南 尺在北(하도에서 북쪽에서 남쪽을 보면서 앞으로 손을 뻗었다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된다)하고 司天은 항상 南에 있고 在泉은 항상 북에 있으므로 三陰이 司天하면 寸이 不應하는데 少陰이 司天(甲子年, 甲午年)하면 兩寸이 不應하고 厥陰이 司天(己巳年, 己亥年)하면 右寸이 不應하고 太陰이 司天(己丑年, 己未年)하면 左寸이 不應한다. 三陰이 在泉하면 尺이 不應하는데 少陰이 在泉(少陰이 在泉하는 해는 陽明이 司天함으로 己卯年, 己酉年이 된다)하면 兩尺이 不應하고 厥陰이 在泉(厥陰이 在泉하는 해는 少陽이 司天함으로 甲寅年, 甲申年이 된다)하면 右尺이 不應하고 太陰이 在泉(太陰이 在泉하는 해는 太陽이 司天함으로 甲辰年, 甲戌年이 된다)하면 左尺이 不應한다.

乙, 丙, 丁, 戊, 庚, 辛, 壬, 癸年 즉 北政年에는 남쪽에서 북쪽을 바라보면서 기준을 정함으로 손을 앞으로 뻗었을 때 尺在南, 寸在北하고 司天은 항상 남쪽에 있고 在泉은 항상 북쪽에 있으므로 三陰이 司天하면 남쪽에 있는 尺이 不應한다. 少陰이 司天(丙子年, 丙午年, 戊子年, 戊午年, 庚子年, 庚午年, 壬子年, 壬午年)하면 兩尺이 不應하고 厥陰이 司天(乙巳年, 乙亥年, 丁巳年, 丁亥年, 辛巳年, 辛亥年, 癸巳年, 癸亥年)하면 右尺이 不應하고 太陰이 司天(乙丑年, 乙未年, 丁丑年, 丁未年, 辛丑年, 辛未年, 癸丑年, 癸未年)하면 左尺이 不應한다.

三陰이 在泉하면 북쪽에 있는 寸이 不應하니 少陰이 在泉(少陰이 在泉하는 해는 陽明이 司天함으로 乙卯年, 乙酉年, 丁卯年, 丁酉年, 辛卯年, 辛酉年,

癸卯年, 癸酉年이 된다)하면 兩寸이 不應하고 厥陰이 在泉(厥陰이 在泉하는 해는 少陽이 司天함으로 丙寅年, 丙申年, 戊寅年, 戊申年, 庚寅年, 庚申年, 壬寅年, 壬申年이 된다)하면 右寸이 不應하고 太陰이 在泉(太陰이 在泉하는 해는 太陽이 司天함으로 丙辰年, 丙戌年, 戊辰年, 戊戌年, 庚辰年, 庚戌年, 壬辰年, 壬戌年이 된다)하면 左寸이 不應한다.

呂復(字元膺)이 南北政의 理論을 應用하여 治療한 事例를 하나 소개하여 理論의 응용을 밝히고자 한다.

“한 貴客이 三陽合病에 罹患된 것을 治療할 때 脈이 모두 長弦하고 바다를 건너는데 風濤로 놀란 바가 되어 吐血을 一升 남짓하고 또 脇痛 煩渴 譫語하는지라 마침 그 해의 歲運에 左尺이 마땅히 應하지 아니하거늘 모든 醫師가 腎絕이라 하였다. 公(呂復)이 말하기를 이것은 天和脈이니 근심할 것이 없다 하고 小柴胡湯에 人參을 減하고 生地를 加해서 半劑를 投與한 後에 胃實한 것을 기다려서 承氣湯으로 下하여 利를 얻어서 나게 하였다”¹⁰⁾.

4. 少陰所在 脈不應論

原文의 “陰之所在 寸口何如”의 陰에 대해 대부분의 학자들은 少陰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少陰之脈만이 왜 特別히 南北政 司天在泉의 影響을 받아야만 하는지 그 理由에 있어서는 각기 다른 意見を 提示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王永은 “善則不見 惡者可見”¹¹⁾이라 하여 無爲之君德을 行하면 不應한다고 說明하고 있는데 吳崑도 이 說을 그대로 追從하고 있다.

둘째, 張隱庵은 “五運之中에 少陰은 不司氣化하고 隨六氣之陰陽 而上下左右故로 曰陰之所在何如라(오운 가운데 소음은 氣化를 맡지 않고 6기의 음양을 따라서 위로도 가고 내려오기도 하고 왼쪽 오른쪽으로 감으로 陰之所在何如라고 말한 것이다)¹²⁾”

10) 李樅, 國譯編註醫學入門(I). 서울, 崇文社. 1974. p.54.

11) 白允基, 黃帝內經運氣解釋. 서울, 高文社. 1975. p.251.

12) 張隱庵, 馬蒔, 張馬合註內經. 서울, 成輔社. 1975. p.679.

하고 또 “風寒暑濕燥火는 天之陰陽也니 三陰三陽이 上奉之하여 以司主歲之六氣하고 木火土金水火는 地之陰陽也니 以司五行之化運하여 五歲而右遷이오 而五行之中에 有二火 故로 君火는 不司氣化라 然이나 雖不主運而有所居之位焉이라(풍한서습조화는 하늘의 음양이니 삼음삼양이 위로 받들어 1년의 6기를 관장하고 목화토금수화는 땅의 음양이니 오행의 운화를 관장하여 5년 마다 오른쪽으로 옮겨간다. 오행에는 2개의 火가 있기 때문에 君火는 氣化를 맡지 않는다. 그러나 비록 運을 주관하지는 않지만 머무르는 자리는 있다.)”¹³⁾ 라고 하여 君火가 不司氣化하여 不主時하므로 不應한다고 說明하고 있다. 그러나 張介賓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먼저 그가 그려놓은 그림(Fig. 2, Fig. 3)과 그의 설명을 살펴보고자 한다.

Fig. 2. JiaJi year(甲己年) becomes a period of South Politics, a picture of the pulse becoming absent in South Politics years.



“脈이 不應한다는 것을 三陰에서 少陰이 있는 장소를 가지고 말한 것이고 또 南政 北政을 나누어 上下를 확정한 것이다.…… 또 이르기를 ‘北政의 해에

13) 張隱庵, 馬蒔. 張馬合註內經. 서울. 成輔社. 1975. p.679.

少陰在泉하면 寸口不應한다’ 라고 한 것은 바로 北政年에는 司天이 尺에 應하고 在泉이 寸에 應하기 때문이다. ‘厥陰이 在泉하면 右不應이라’ 이라 했는데 여기서 右는 右寸으로 少陰이 厥陰의 左側에 있지만 地之左間은 右寸이 되기 때문이다. ‘太陰이 在泉하면 左不應이라’ 했는데 여기서 左는 左寸으로 少陰이 太陰의 右側에 있지만 地之右間은 左寸이 되기 때문이다. ‘南政의 해에 少陰이 司天하면 寸口不應한다’ 라고 한 것은 바로 南政年에는 司天이 寸에 應하고 在泉이 尺에 應하기 때문이다. ‘厥陰이 司天하면 右不應이라’ 했는데 여기서 右는 右寸으로 少陰이 厥陰의 左側에 있지만 右寸의 자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太陰이 司天하면 左不應이라’ 했는데 여기서 左는 左寸으로 少陰이 太陰의 右側에 있지만 左寸의 자리에 해당되기 때문이다.”¹⁴⁾

Fig. 3. YiBingDingWuGengXinRenGui years(乙丁辛癸丙戊庚壬年) become a period of North Politics, a picture of the pulse becoming absent in North Politics years.



張介賓은 또 少陰所在 脈不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陰之所在에 其脈不應

14) 張介賓. 類經圖翼. 서울. 成輔社. 1982. pp.69-70.

은 諸家之注가 皆謂六氣는 以少陰爲君하고 君象無爲하며 不主時氣 故로 少陰所至에 其脈不應也라 하나 此說殊爲不然이라. 夫少陰은 既爲六氣之一이니 又安有不主氣之理아 惟天元紀大論中 君火以明 相火以位之下에 王氏注 曰君火在相火之右나 但立名於君位오 不立歲氣一言은 此在王氏固已誤注어늘 而諸家引以釋此하니 蓋亦不得已而爲之強解耳니 義豈然歟아 夫三陰三陽者는 天地之氣也라. 如太陰陽明論曰 陽者는 天氣也니 主外하고, 陰者는 地氣也니 主內라. 故로 陽道實하고 陰道虛라 하니. 此陰陽虛實은 自然之道也라. 第以日月證之면 則日爲陽이니 其氣常盈하고, 月爲陰이니 其光常缺이라. 是以로 潮汐之盛衰는 亦隨月而有消長하니 此陰道當然之義를 爲可知矣라. 人之經脈은 即天地之潮汐也라. 故로 三陽所在에 其脈無不應者는 氣之盛也오 三陰所在에 其脈有不應者는 以陽(陰)氣有不及이니 氣之虛也라. 然이나 三陰之列에 又惟少陰獨居乎中하니 此又陰中之陰也라. 所以로 少陰所在爲不應이니 蓋亦應天地之虛耳라 (陰之所在에 그 脈이 응하지 않는 것을 모든 주가들의 주석이 한결같이 6기는 少陰으로 君을 삼고 임금의 모습은 無爲를 주장하고 時氣를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少陰所至에 그 脈이 응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이 설은 너무도 그렇지가 않다. 少陰은 이미 6기 중의 하나가 되는데 또한 어찌 氣를 주관하지 않는 이치가 있을 수 있겠는가 오직 「친원기대론」에서 君火以明 相火以位의 아래에 왕빙이 ‘군화는 상화의 오른쪽에 있으나 단지 명칭만 임금자리라고 하였지 그 해의 기운은 세우지 않는다’ 라고 한 한마디는 왕빙이 진실로 너무도 잘못 달은 注인데 여러 주석가들이 이것을 인용해서 이 부분(陰之所在 其脈不應)을 해석한다. 이것은 또한 왕빙이 부득이하여 억지로 해석을 한 것일 뿐이니 뜻이 어찌 그러하겠는가. 대저 삼음삼양은 천지의 기운이다. 이것은 「태음양명론」에서 ‘陽은 天氣니 밖을 주관하고 陰은 地氣니 안을 주관한다. 따라서 陽道는 實하고 陰道는 虛라’고 한 것과 같으니 陽實 陰虛는 자연의 법도이다. 日月을 가지고 증명해 보면 日은 陽

이니 그 기운이 항상 차 있고 月은 陰이니 그 빛이 항상 부족하다. 따라서 潮汐에서 간조와 만조가 있는 것은 또한 달을 따라서 消長하는 것이니 이것이 陰道의 당연한 이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사람의 經脈은 천지기운의 潮汐이다. 따라서 三陽이 있는 곳에는 그 脈이 應하지 아니함이 없는 것은 氣가 왕성하기 때문이고 三陰이 있는 곳에 그 脈이 應하지 않는 것은 陰氣(모든 관본에 陽氣로 되어 있으나 내용으로 볼 때 陰氣가 맞다고 사료된다)가 不足하여 氣가 허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三陰中에서 오직 少陰이 홀로 가운데 居하여 陰中의 陰이 된다. 따라서 少陰所在에 脈이 不應하는 것이니 또한 천지기운의 虛함에 應한 것일 따름이다.”¹⁵⁾

위의 내용은 南北政에서 少陰이 있는 곳에 脈이 不應하는데 少陰이 君火가 되어 君이 無爲하며 不主時氣하여 脈이 不應하는 것이 아니라 三陰之脈은 본래 虛하고 이 중 少陰은 陰中之陰이 되어 자연스럽게 少陰所在에 脈이 不應하게 된다고 설명한 것인데 이 주장이 합리적이라 사료된다.

5. 諸不應者反其診則見矣의 諸家說

위의 注釋에 對하여 諸家の 見解가 各各 다르므로 南北政에 對해 처음 工夫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混亂을 惹起하므로 이를 밝혀볼 必要性이 있다고 史料된다.

王永은 “不應은 皆爲脈沈이라 脈沈下者는 仰手而沈이나 覆其手則沈爲浮하고 細爲大也라(不應은 모두 脈이 침한 것이다. 脈이 沈下한 것은 환자의 손바닥을 위로 하고 脈을 짚을 때 沈脈이 나오지만 환자의 손바닥을 뒤집어서 脈을 짚으면 沈했던 것은 浮脈이 나오고 細했던 것은 大脈이 나오게 된다.”¹⁶⁾ 라 하여 診脈時 환자의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게 하고 脈을 짚으면 沈變爲浮·細變爲大한다고

15) 張介賓, 類經. 서울, 成輔社, 1982. pp.822-823.

16) 白允基, 黃帝內經運氣解釋. 서울, 高文社, 1975. p.251.

說明했는데 이 說은 劉溫舒·脈訣刊誤를 지은 戴同父·吳崑等이 그대로 踏襲하고 있다. 그러나 이 說은 잘못된 내용이라 사료된다.

張隱庵은 “反其診者는 以人이 面南面北而診之也라 蓋以圖象으로 平置於几上하면 以司天在南하고 在泉在北이라 北政之歲에 人面北以診之하고 南政之歲에 人面南以診之면 則左右之不應을 可見矣라. 夫 天上地下하고 天南地北은 此天地之定位也라 人面南而面北者는 人居天地氣交之中하야 隨天地之氣而環轉也라(反其診이라고 한 것은 사람이 남쪽을 향하거나 북쪽을 향하여 진맥을 하는 것이다. 圖象을 책상 위에 평평하게 펼쳐 놓으면 司天은 남쪽에 있고 在泉은 북쪽에 있다. 북정의 해에 사람이 북쪽을 향해 진맥하고 남정의 해에 사람이 남쪽을 향해 진맥하면 左右의 맥이 不應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대체로 하늘은 위에 있고 땅은 아래에 있으며 하늘은 남쪽에 있고 땅이 북쪽에 있는 것은 천지의 고정된 자리이다. 사람이 남쪽을 향하고 북쪽을 향하는 것은 사람이 천지의 기운이 교차하는 가운데에 있어 천지기운을 따라 돌기 때문이다).”¹⁷⁾라 하여 북정의 해에 평소와 반대로 남쪽을 향해 진맥하고 남정의 해에 반대로 북쪽을 향해 진맥하면 不應하는 맥이 나타난다고 해석하였는데 이도 역시 옳지 않은 해석이라 사료된다.

高世栻은 “「五運行大論」에 云脈法 曰 天地之變은 無以脈診이라하니 故로 申明諸不應者는 不當求之於診이오 若反其診而求之면 則可見矣라 反은 猶離也라 由此觀之컨대 則陰之所在에 寸口는 當明其義하야 而不診其脈也라(「오운행대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맥법에서 이르기를 “司天, 在泉之氣의 변화는 맥상에 근거하여 진찰을 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모든 不應하는 것은 診脈에서 구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고 만약 맥진을 떠나서 구하면 알 수 있다는 것을 거듭 밝힌 것이다. 反은 떠난다는 뜻과 같다. 이로 말미암아 보건대 陰之所在에 寸口

맥은 마땅히 그 의미를 파악하여 맥을 진찰해서는 안되는 것이다.”¹⁸⁾ 라고 하여 諸不應者反其診은 맥진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진찰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五運行大論」에서 말한 것은 司天在泉之氣와 勝復之氣는 맥진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 한 것이고 남북정의 不應은 病과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不應하는 것임으로 「五運行大論」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 해석도 옳지 않다고 사료된다.

또 任應秋는 不應은 少陰脈의 異常으로 “諸不應者 反其診則見矣”는 脈의 象態가 沈細而伏하여 손가락에 不應하는 情況이라고 解釋¹⁹⁾하였다. 이는 “反其診則見矣”를 맥을 짚어보면 不應하는 맥이 나타난다고 해석한 것인데 “反”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리고 馬蒔는 “所謂諸不應者는 卽南北二政에 而相反以診之니 則南政主在寸者는 北政主在尺이오 而南政主在尺者는 北政主在寸하니 則其脈自明矣라. 且 不惟尺寸爲然이라 凡南北之左右二間도 其相反이 與尺寸同耳라(이른바 諸不應이라 한 것은 南政과 北政에서 반대로 진찰하는 것이니 남정에서 寸에 있는 것을 주장(여기서는 三陰司天時 寸不應의 뜻이다)하던 것은 북정에서는 尺에 있는 것을 주장(三陰司天時 尺不應의 뜻이다) 하고 남정에서 尺에 있는 것을 주장(三陰在泉時 尺不應)하던 것은 북정에서는 寸에 있는 것을 주장(三陰在泉時 寸不應)하니 그 맥이 저절로 분명해 진다. 또한 尺寸만 그러할 뿐만이 아니다. 남정 북정에서 左右 二間도 그 상반되는 것이 尺寸과 동일 할 따름이다.”²⁰⁾ 라고 하여 남정과 북정에서 尺寸과 左右가 반대로 相反되어 不應한다고 주장을 하였는데 이것도 본래의 뜻과는 거리가 있다고 사료된다.

張介賓은 “凡南政之應在寸者는 則北政應在尺하고

17) 張隱庵, 馬蒔. 張馬合註內經. 서울. 成輔社. 1975. p.676.

18) 高世栻. 黃帝素問直解. 北京. 科學技術出版社. 1982. p.646.

19) 任應秋. 運氣學說. 上海. 上海科技出版社. 1982. p.73.

20) 張隱庵, 馬蒔. 張馬合註內經. 서울. 成輔社. 1975. p.677.

北政之應在寸者是 則南政應在尺하니 以南北相反而診之면 則或寸或尺之不應者皆自見矣라(무릇 남정에서 寸에서 應하는 것은 북정에서는 尺에서 응하고, 북정에서 寸에서 應하는 것은 남정에서는 尺에서 응하니 남정 북정에서 반대로 진맥하면 혹 寸에서 또는 尺에서 不應하는 것이 모두 저절로 나타난다.)²¹⁾ 고 하였는데 이를 다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諸不應者”는 前文에서 말한 “寸口不應” “左不應” “右不應” 등의 各種 寸口脈이 不應하는 해(年)요 “反其診”은 上述한 不應하는 해와 相反되는 해(남정과 북정으로 상반 되는 해)를 診脈하면 脈이 正常的으로 나타난다는 뜻으로, 例를 들어 “北政之歲 少陰在泉 則寸口不應”이나 萬若 南政之歲에 少陰이 在泉할 때 脈診을 해보면 寸口脈에 上述한 不應脈象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意味로 解釋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설명이 명쾌하지 않다.

諸不應者反其診則見矣는 “모든 남정이나 북정에서 맥이 不應하는 것은 그 진맥을 반대로 해보면 나타난다”는 뜻이다. 반대로 진맥한다는 것을 張介賓은 南政年에 안 나타나는 것이 北政年일 때 나타나고 北政年일 때 안 나타나는 것이 南政年일 때 나타난다는 것은 이치적으로는 그것이 맞지만 진맥을 하는 그 당시에는 적용할 수가 없는 문제이다. 따라서 필자의 견해로는 이곳에서의 “反”은 寸과 尺, 左와 右를 나타내는 말로 “寸이 不應할 때 尺을 보면 나타나고 尺이 不應할 때 寸을 보면 나타나며 左가 不應할 때 右를 보면 나타나고 右가 不應할 때 左를 보면 나타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된다.

6. 南北政指掌圖說

南北政의 理論은 매우 複雜하므로 이에 對한 結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左手의 손가락을 利用하여 把握하는 方法이다. 이를 그림(Fig. 4)을 通하여 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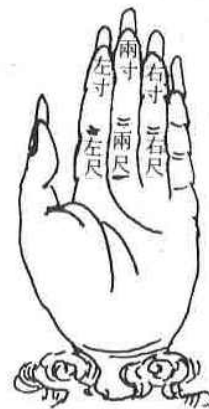
明을 해 보겠다.

方法은 南政의 子年은 中指端에서 始作하고 北政의 子年은 中指根에서 始作하여 둘다 逆時針方向으로 옮겨 가는데 年辰이 該當하는 곳이 곧 不應하는 位置이다.

例를 들어 南政의 子年(即甲子年)일 때는 中指端이 該當되니 兩寸이 不應하고 丑年에는 左寸이 不應하고 寅年에는 左尺이 不應하게 된다.

또 北政의 子年(即丙子年·戊子年·庚子年·壬子年)일 때는 中指根이 該當되니 兩尺이 不應하고 丑년에는 右尺이 不應하고 寅년에는 右寸이 不應하게 된다.

Fig. 4. A picture explaining South and North Politics with fingers.



그리고 張介賓은 以上の 內容을 “南政子年兩寸沈이오 丑未巳亥左右尋이라(左右寸也). 卯酉兩尺寅申左오(左尺) 辰戌右尺眞分明이라. 北政陽明沈兩寸이오 太陽少陽左右應이라(左右寸也). 少陰兩尺厥陰左오(左尺) 太陰右尺何須問고”²²⁾라 지어 쉽게 暗記하고 活用할 수 있도록 하였다.

7. 陰陽交尺寸反

21) 張介賓, 類經, 서울, 成輔社, 1982, p.822.

22) 張介賓, 類經圖翼, 서울, 成輔社, 1982, p.71.

『素問·五運行大論』에 “尺寸反者死 陰陽交者死”라 하여 陰陽과 尺寸의 應하는 것이 南北政의 規律과 반대가 되면 預後가 좋지 않다는 것을 言及하고 있다.

이에 對하여 張介賓은 “陰陽交라는 것은 例를 들어 그 해에 少陰이 左側에 있으면 마땅히 左脈이 나타나지 않아야 하는데 도리어 右脈이 나타나지 않고, 陽脈은 本來 右側에 있어야 하는데 도리어 左側으로 옮겨간 것이니 이때 少陰과 자리바꿈한 位置는 少陽이 아니면 太陽이 되므로 陰陽交라 한 것이다. 陰陽脈이 交叉한 者는 死하니 오직 辰戌·丑未·寅申·巳亥의 八年에만 있을 수 있다. 尺寸反이라는 것은 例를 들어 그 해에 少陰이 尺部에 있으면 마땅히 尺部가 不應해야 하는데 도리어 寸部가 不應하고 陽이 本來 寸部에 있어야 하는데 도리어 尺部로 옮겨간 것이다. 그러므로 尺寸反이라 하니 尺寸脈이 反對로 나타나는 者는 死하니 오직 子午·卯酉의 四年에만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陰陽이 모두 交叉 해야만 陰陽交라고 말할 수 있고 尺寸이 모두 反對로 되어야만 尺寸反이라고 말할 수 있다. 萬一 本位에서 宜當 應해야 하는데 不應하는 境遇는 陰氣가 不應하는 것으로 이때는 단지 疾病으로서 그렇게 된 것임으로 陰陽交 尺寸反의 範疇에는 屬하지 않으므로 注意해야 한다.”²³⁾ 라고 內容을 說明하고 있다.

위에서 陰陽交者死 하니 오직 辰戌·丑未·寅申·巳亥의 八年에만 있다고 했는데 이 말은 언뜻 들으면 매우 난해해 보이나 南北政指掌圖를 보면 食指端이 南政에서 太陰, 北政에서 太陽이 되고 食指根이 南政에서 少陽, 北政에서 厥陰이 되며 無名指端이 南政에서 厥陰, 北政에서 少陽이 되고 無名指根이 南政에서 太陽, 北政에서 太陰이 되기 때문이다. 또 尺寸反者死하니 오직 子午·卯酉의 四年에만 있다고 한 것은 南北政指掌圖를 보면 中指端과 中指根이 少陰과 陽明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8. 甲己가 南政이 되고 나머지가 北政이 되는 이유에 대한 說

南政이라는 것은 임금이 南面하여 行승하는 法度의 뜻을 取한 것이고 北政이라는 것은 臣下가 北面하여 君命을 받는 法度를 取하여 사람의 脈이 天和에 應한다는 內容을 담고 있는 理論이다.

『蠡海集』에서도 “南北二政에 南有二而北有八者는 此從五行化氣하여 以配五音而立五義者焉이라 甲己化土에 宮而爲君이니 君臨南面이오 乙庚化金에 商而爲臣이오 丙辛化水에 羽而爲物이오 丁壬化木에 角而爲民이오 戊癸化火에 徵而爲事니 臣民物事는 奉上承命이니 安得不北面乎아 是以 南政有二而北政有八이오 況土爲萬物之祖而爲四行之主也夫아(남정과 북정에서 남정에 2개의 천간이 있고 북정에 8개의 천간이 있는 것은 오행의 氣化를 좇아 5음을 배합하여 5義를 세운 것이다. 甲己가 土가 됨에 宮음이 되어 임금이 되니 임금은 남쪽을 향해서 서게 되고, 乙庚이 金이 됨에 商음이 되어 臣이 되고, 丙辛이 水가 됨에 羽음이 되어 物이 되고, 丁壬이 木이 됨에 角음이 되어 民이 되고, 戊癸가 火가 됨에 徵음이 되어 事가 되니 臣과 民과 物과 事는 임금을 받들어 명령을 받으니 어찌 북쪽을 향하지 않겠는가. 따라서 남정에 2개의 천간이 있고 북정에 8개의 천간이 있게 된다. 하물며 土는 만물의 근원이 되어 四行의 주인이 됨에 있어서라.”²⁴⁾ 라고 하였는데 이도 역시 漢書律曆志에서 말한 “以君臣民事物로 言之則宮爲君이오 商爲臣이오 角爲民이오 徵爲事오 羽爲物이니 唱和有象 故로 言君臣位事之體也라(君과 臣과 民과 事와 物로 말하면 宮은 君이 되고 商은 臣이 되고 角은 民이 되고 徵는 事가 되고 羽는 物이 되니 임금이 명을 내리고 아랫사람이 和答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임금과 신하의 자리

23) 張介賓. 類經圖翼. 서울. 成輔社. 1982. pp.69-71.

24) 松下見林. 運氣論奧疏鈔卷六. pp.56-57.

와 일의 본체를 가지고 말한 것이다.)²⁵⁾에 근거하여 임금과 신하의 관계로서 해석한 것이다.

그런데 張景岳은 “夫干支相合而成花甲이라 十干之中에 復各有所統十干하니 如六甲干頭는 必起甲子하야 至戊末而六十花甲盡이라 及至六己하면 復起甲子하야 至癸末而六十花甲盡이라 故로 甲己年은 必起于甲子月하고 甲己日은 必起于甲子時하니 此甲己二千은 所以爲十干之首 故로 象君而爲南政이오 其餘則北面象臣而爲北政라 人之血脈은 故亦應之하니 即奇門諸家가 亦獨以甲己로 爲符頭하니 此花甲自然之理오 固不待土爲五行之尊而分南北也라(천간과 지지가 相合하여 花甲을 이룬다. 十干中에서 다시 각각 통솔하는 十干이 있으니 6甲의 시작은 반드시 甲子에서 시작하여 戊의 끝에 이르러 60花甲이 다 끝나는 것과 같다. 6己에 이르게 되면 다시 甲子부터 시작하여 癸의 끝에 이르러 60花甲이 다 끝난다. 따라서 甲己年은 반드시 甲子月에서 시작하고 甲己日은 반드시 甲子時에서 시작하니 이 甲己의 2개 天干은 十干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임금으로 상징되어 南政이 되고 나머지는 북쪽을 향해 신하로 상징되어 北政이 된다. 사람의 혈맥은 본래 또한 거기에 응하니 기문둔갑 등에서 또한 오직 甲己로 부적의 으뜸으로 삼으니 이것은 60花甲의 자연스런 이치이고 본래 土가 오행의 준귀한 위치가 되어 남북으로 나누는 것을 기다리지 않는다.)”²⁶⁾ 라 하여 甲己가 土로 宮음이 되기 때문에 五行之尊이 되는 것이 아니라 六十甲子가 순환하는 과정中에서 甲己二千은 時頭法에서 60甲子를 통솔하는 머리가 됨으로 “象君而南政”한다고 主張하였다.

9. 結 論

甲己가 南政이 되고 나머지가 北政이 된다는 說을 중심으로 南北政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南北政은 『素問』의 至眞要大論에 처음 제시되었는데 病이 아니면서도 運氣에 따라 脈이 沈細하여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2. 五運에서 甲己는 土가 되어 尊位가 됨으로 南面行令하여 南政이 되고 나머지 8년은 北面受令함으로 北政이 된다. 張介賓은 60甲子가 순환하는 과정中에서 甲己二千은 時頭法에서 60甲子를 통솔하는 머리가 됨으로 “象君而南政”한다고 主張하였다.

3. 南政年에는 남쪽을 보면서 기준을 정하니 寸在南而尺在北하며 司天在南하고 在泉在北한다. 따라서 三陰이 司天하면 寸不應하여 少陰司天時 兩寸不應, 厥陰司天時 右寸不應, 太陰司天時 左寸不應한다. 三陰이 在泉하면 尺不應하여 少陰在泉時 兩尺不應, 厥陰在泉時 右尺不應, 太陰在泉時 左尺不應한다.

4. 北政年에는 북쪽을 보면서 기준을 정하니 寸在北而尺在南하며 이때도 司天在南하고 在泉在北한다. 따라서 三陰이 司天하면 尺不應하여 少陰司天時 兩尺不應, 厥陰司天時 右尺不應, 太陰司天時 左尺不應한다. 三陰이 在泉하면 寸不應하여 少陰在泉時 兩寸不應, 厥陰在泉時 右寸不應, 太陰在泉時 左寸不應한다.

5. 少陰所在脈不應에 對해 王永은 無爲以化하는 君德을 行하기 때문이라고 하고 張隱庵은 “少陰 不司氣化 隨六氣之陰陽 而上下左右”하기 때문이라 했으나 張介賓은 위의 說을 否定하고 陰道는 虛하고 또 三陰中에서도 少陰은 獨居中하야 陰中之陰이 되므로 少陰所在에 脈이 不應하니 이는 天地之虛에 應하는 상황이라 하였다.

6. 諸不應者 反其診則見矣의 諸家주석은 모두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이 구절의 본 뜻은 “反”의 뜻을 살려 寸과 尺, 左와 右가 반대로 나타난다는 뜻으로 “寸이 不應할 때 尺을 보면 나타나고, 尺이 不應할 때 寸을 보면 나타나며, 左가 不應할 때 右

25) 班固. 漢書(四). 北京. 中華書局. 1992. p.958.

26) 張介賓. 類經圖翼. 서울. 成輔社. 1982. p.72.

를 보면 나타나고, 右가 不應할 때 左를 보면 나타난다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된다.

7. 陰陽交는 少陰所在不應脈이 左右로 자리바꿈한 경우로 辰戌, 丑未, 寅申, 巳亥의 八年에만 나타나며 尺寸反은 少陰所在不應脈이 尺寸으로 자리바꿈한 경우로 子午, 卯酉의 四年에만 나타나는데 이 경우 모두 死하게 된다.

8. 張介賓은 甲己가 土로 五行之尊이 되기 때문에 南政이 되는 것이 아니라 六十甲子가 순환하는 과정 속에서 甲己二千은 時頭法에서 60甲子를 통솔하는 머리가 되므로 南政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감사의 글

본 논문은 2015년도 정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 지역대학우수과학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No.201501730001).

References

1. Go SS. Hwangjesomunjikhae. Beijing. Gwahakgisulpublisher. 1982.
高世栻. 黃帝素問直解. 北京. 科學技術出版社. 1982.
2. Ban G. HanSeo(4). Beijing. Junghwaseoguk. 1992.
班固. 漢書(四). 北京. 中華書局. 1992.
3. Baek YG. Hwangjenaegyongungihaeseok. Seoul. Gomunsa. 1975.
白允基. 黃帝內經運氣解釋. 서울. 高文社. 1975.
4. Matsuoka MB. Ungironosocho No.6.
松下見林. 運氣論奧疏鈔卷六.
5. Lee C. Gukyeokpyeonjuuihakiipmun(I). Seoul. Sungmoonsa. 1974.
李梈. 國譯編注醫學入門(I). 서울. 崇文社. 1974.
6. Im EC. Ungihakseol. Shanghai. Shanghaigwagipublisher. 1982.
任應秋. 運氣學說. 上海. 上海科技出版社. 1982.
7. Chang GB. Yugyeong. Seoul. Sungbosa. 1982.
張介賓. 類經. 서울. 成輔社. 1982.
8. Chang GB. Yugyeongdoik. Seoul. Sungbosa. 1982.
張介賓. 類經圖翼. 서울. 成輔社. 1982.
9. Chang EA, Ma Si. Changmahapjunaegyong. Seoul. Sungbosa. 1975.
張隱庵, 馬蒔. 張馬合註內經. 서울. 成輔社. 1975.
10. Hong WS. Junggyohwangjenaegyong. Seoul. Dongyanguihakyonguwon. 198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11. Yun CY. A Study of South and North Politics. Oriental Medicine. 1985. 11(2).
尹暢烈. 南北政에 관한 고찰. 동양의학. 1985. 11(2).
12. Yun CY. A Study of South and North Politics(II).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Medicine. 1987. 6(1).
尹暢烈. 南北政에 관한 고찰(II). 대전대학교논문집. 1987. 6(1).